‘성폭력 짐승’ 아직 많다

광주서 외삼촌이 지적장애 10대 조카 상습 성폭행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공분(公憤)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삼촌이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인은 강간 미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데다 임신을 막기 위해 조카방에 콘돔을 숨겨놓고 범행때 마다 사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급식 배달업체 직원 박모(24·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사는 조카 A(14)양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또 임신을 막기 위해 콘돔을 구입, A양의 방에 숨겨놓고 범행때 마다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 2008년 10월 강간 미수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A양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노려 고민을 상담해주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2008년 당시 성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13세 미만을 성폭행했거나 습관적인 성폭행 전과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는 18일 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장 감식 1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현장. 경찰이 바닥에 떨어진 귀금속을 수거해 감식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길태 현장검증 날에 경찰이…

서울서 여고생 성폭행 … “성매매 처벌하겠다” 협박

서울에서 ‘김길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이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범행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한 날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할 말을 잃게 했다.

서울중랑경찰은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서울모 경찰서 나모(34) 경장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 경장은 지난 16일 새벽 4시30분께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하룻밤 만남을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김모(17·고2)양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진 날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나 경장은 김양을 만난 뒤 신분을 경찰이라고 밝히고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김양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뒤 17일 근무 중이던 나 경장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대낮 금은방 강도

광주 중흥동 아파트 상가…1천만원 상당 털어

대낮에 도심 아파트 상가 금은방에 강도가 침입해 주인을 둔기로 때린 뒤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다.

18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아파트 앞 상가 조모(56)씨의 금은방에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괴한이 침입해 조씨를 둔기로 때린 뒤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갔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범인은 범행 직후 전남대 정문 방향으로 달아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한 남성이 들어와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해서 진열장을 여는데,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둔기를 꺼내 머리와 팔 등을 서 너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범행 6시간 전 조씨의 가게에 들러 “딸의 반지를 팔려고 왔다. 얼마나 줄 수 있느냐?”며 묻는 등 2~3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은방 강도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60m 떨어진 한 사우나 CCTV에 찍힌 범인 도주 모습.

경찰은 대낮에 대로변에 있는 금은방을 3분 만에 터는 등 수법이 대담한 점으로 미뤄 동일 전과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목격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빵 교환 시비 슈퍼 주인 살해

순천경찰은 18일 ‘빵 교환’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슈퍼마켓 주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노모(4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6시께 순천시 별량면 한 슈퍼마켓 앞에서 주인 박모(56)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교환해달라”며 항의하자 자신의 2.5t 탑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중국동포 임신부

‘신종플루 사망’ 최종 판명

국내 첫 사례 확인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태아와 함께 숨진 후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역학조사가 지연됐던 중국동포 임신부가 신종플루 사망자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신종플루로 인해 임신부와 태아가 함께 숨진 국내 첫 사례다.

전남도는 “지난 1월 태아와 함께 숨진 김모(31)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가 김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회신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당시 보고를 허술하게 해 역학조사를 지체시킨 순천시 보건소와 전남대병원 등에 대한 관리와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폐렴증상을 보여 순천지역 병원을 전전하다 같은달 28일 전남대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김길태 검찰 송치

강간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살해 피의자 김길태(33)에게 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18일 사건기록을 넘긴데 이어 19일 오전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 개별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보강수사와 공소유지, 피해자 지원 담당 등 3명의 검사를 추가로 이 사건에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길태가 이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동료들 회생 몸부림 칠 때 도둑질 이라니…

광주지검, 화인코리아 전 직원 4명 구속·입건

6년간 300여차례 1억3천만원 닭·오리 빼돌려

국내 최대 닭·오리 가공업체에 다니던 나모(41)씨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된 냉동 오리를 2.5t 탑차에 가득 실었다. 직장 동료인 장모(54)씨가 출고지시서 없이 불법으로 건네 준 물건이었다.

나씨는 공모해서 빼돌린 96만원 상당의 오리를 팔아넘긴 뒤 장씨와 돈을 나눴다. 회사가 조류독감 여파 등으로 인해 최종 부도처리된 지 불과 12일 만이었다.

당시 회사 직원들은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나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리와 닭 담당 출고 직원 등 내부 공모자를 늘려가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300여차례에 걸쳐 닭·오리 가공제품을 훔쳤다.

나씨가 출고 직원 3명과 함께 6년간 빼돌린 제품은 시가로 1억3천만원 상당. 회사로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광주지검 조사과는 18일 회사의 냉동 닭·오리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절도)로 화인코리아 전 직원 나씨와 장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오리훈제 담당 출고 직원인 장씨 등과 함께 지난 2003년 12월부터 297차례에 걸쳐 닭·오리 가공제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씨는 회사에 대해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진 2005년부터는 닭발 등 육가공 부산품까지 훔쳐 파는 등 어수선한 회사 분위기를 틈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횡령’ 탤런트 나한일씨 법정구속

쌍나팔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8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55)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해 대출 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으며,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연합뉴스

7·9급 공무원/경찰직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합격 전문학원과 함께하면 합격은 쉽고 빨라집니다!
→ 2009년 광주, 전남 사회복지직 9명 보건직 10명 보건의료 100명 합격, 70%합격률
→ 2008년 광주시 교육행정직 9명 조경직 10명 합격, 60%합격률
→ 2006년 광주, 전남 소방직 13명 순경직 17명 합격, 67%합격률
서울고시학원!! 서울고시학원!!
개강 › 매월 1일
행정직/교육행정직/세무직 경찰직/소방직 전문
나원참 귀환 국어 : 승대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고시학원 직렬 – 경찰직 합격의 전문, 광주시교육 감사원
서울경찰전문학원 [251-7959]
합격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igosi.co.kr

의사/약사가 되는 길
메디페스 의학원!!! 메디페스 약학원!!!
광주 최초, 유일한 전국 유명 교수진의 학원 실제 강의!!
PEET/ MEET/ DEET
MDPass의학원의 특징
특별초청: 임동선 교수 [일반성물학]
MDPass 醫학원 [광주] 303-2453 mdpass.co.kr